

인벤티지랩 “엠제이, 악의적 공격… 신주상장 예정대로 진행”

신주 상장·발행 금지 소송

인벤티지랩, 엠제이 법적조치 착수
‘시장 혼란·회사 압박’ 의도 판단
“주주가치 훼손 행위 단호히 대응”

인벤티지랩이 신주 발행을 앞두고 악의적인 소송에 휘말렸다. 회사측은 엠제이파트너스(엠제이)가 제기한 신주상장 가치분 신청 등의 소송과 관련 “전혀 근거 없는 공격”이라고 판단,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엠제이는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인벤티지랩이 지난해 9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한 ‘신주상장금지 가치분 신청’ 및 ‘신주발행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인벤티지랩은 소장 접수 사실을 전달받은 직후 한국거래소에 문의해, 거래소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공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벤티지랩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거래소에 문의한 결과 신주상장 예정일(20일) 직전 영업일인 금요일 오후에 제기된 가치분 신청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신주상장은 예정대로 정상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벤티지랩은 지난해 9월 국내 투자기관을 상대로 39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으며, 지난 달 전환청구가 접수되어 20일 160만9756주의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엠제이측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은 주가 조작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인벤티지랩의 지배자 내지 특수관계인들의 범죄 행위를 수단으로 하거나 범죄행위와 결부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인벤티지랩은 과거 엠제이와의

어떤 접점도 없었으며, 이번 소송 역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인벤티지랩측은 “설립 이래 모든 펀딩과 사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가치분 신청서에 포함된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엠제이는 2025년 6월 말 기준 당사 주식 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 이전까지 어떠한 통보나 의견 제시도 없었다”며 “거래가 있던 업체도 아니고 어떤 의도인지 전혀 알지 못해 파악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엠제이의 악의적인 소송은 과거에도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인벤티지랩은 “엠제이는 과거 자회사 큐라티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였다”며 “이번 가치분 역시 시장의 혼란을 유발하거나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지속되는 근거없는 공격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사건을 시장 신뢰와 주주가치를 겨냥한 근거 없는 공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며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하위 주장으로 시장 불안을 조성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벤티지랩은 추진 중인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측은 “현재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공동연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협력 범위의 확장도 논의 중”이라며 “이외에도 여러 글로벌 제약사, 스페셜티 파마 및 바이오텍들과도 연구,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 등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한국콜마, ‘AI 팩토리 사업’ 주관… “K-뷰티 경쟁력 높일 것”

국내 화장품 기업 유일 선정 “기술력·혁신 역량 인정 받아”

한국콜마는 국내 화장품 제조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산업통상부 ‘AI 팩토리 사업’ 주관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제조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비용, 탄소 배출 등을 감축하는 프로젝트로 2025년 9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4년 4개월간 진행된다.

한국콜마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화 시스템을 개발해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스마트 공장은 사람이 설정한



한국콜마 세종공장에서 제품이 제조되고 있다. /한국콜마.

작업 조건에 따라 기계가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에 머무는 데 비해 AI 팩토리는 인공지능이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해 생산 공정을 최적화한다.

한국콜마는 생산 계획, 제조, 품질관리, 충전·포장 등 공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전환을 이뤘을 계획이다. 주요 과제는 화장품 생산 데이터를 통합·연계하는 플랫폼 구축, 품질 향상과 공정 정확도를 높이는 자율 공정 제어 인공지능 모델 설계 등이다.

특히 공정 정확도를 세계 최고 수준인 95%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콜마는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자동화 시설을 활용해 왔고 모든 원천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제조 공정의 불량률을 기존 대비 42% 감소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AI 팩토리를 적용할 경우, 불량으로 인한 재작업은 줄이고 다품종 소량 생

산에 최적화된 첨단 제조 체계를 갖춰 고객사의 보다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국콜마가 개발하는 인공지능 자율화 시스템은 향후 국내외 콜마그룹 공장 모두에 도입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과 독자 기술력의 입지를 넓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AI 팩토리 사업에 화장품 기업 중 유일하게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한국콜마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K뷰티 제조 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소아 적응증 추가 ‘헴리브라’ WHO 필수 의약품 등재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美 FDA 품목허가 승인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 소아 적응증에 대한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적응증은 소아성 포도막염과 화농성 한선염 등 2가지다.

유플라이마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다. 저농도 대비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르산염을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20mg/0.2ml, 40mg/0.4ml, 80mg/0.8ml 등 총 3가지 용량으로 제품군을 구성했다.

셀트리온은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의 소아 적응증에 대한 독점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이번 품목허가를 획득해 빠른 시장 진입과 점유율 확대 기반을 다졌다.

또 셀트리온은 이중가격 전략을 바탕으로 판로를 늘리고 있다. 낮은 도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 /셀트리온

가격과 높은 도매가격으로 판로를 구축해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낸다.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유플라이마와 휴미라 간 상호교환성을 인증받아 교차 처방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상호교환성 제도는 약국에서 오리지널 의약을 바 이오시밀러로 대체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유플라이마 소아 적응증 추가 획득으로 미국서 소아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제공돼 의료 현장에서 처방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A형 혈우병 치료제〉

JW중외제약 “임상적 가치 인정받아”

JW중외제약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 목록과 소아용 필수 의약품 목록 2025년 개정판에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가 새롭게 등재됐다고 20일 밝혔다.

WHO 필수 의약품 목록은 각 국가별 공공 조달 및 건강보험 급여 정책 수립의 기준 문서로 활용된다.

‘헴리브라’는 이종특이항체 치료제로 A형 혈우병 환자의 몸속에 부족한 혈액응고 제8인자를 모방하는 기전을 갖췄다.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유일하게 제8인자 제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 보유 환자뿐 아니라 비항체 환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임상시험에서는 연령이나 항체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낮은 연간 출혈률(ABR)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절 출혈 감소 및 관절 기능 유지 효과도 입증됐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대부분 이상반응이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됐다.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주사 부위 통증으로 대체로 경증에서 중등도 수준이었다. 또 고용량의 활성화 프로트롬빈 복합제(aPCC)를 병용할 경우 드물게 혈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권장 지침을 준수하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헴리브라는 최대 4주 1회 피하 주사만으로 출혈 예방 효과가 지속되는 것도 특징이다. 환자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1·2·4주 간격으로 투약 주기를 선택함으로써 통원 부담은 줄이고 치료 순응도는 높인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WHO 필수 의약품 등재는 헴리브라의 임상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A형 혈우병 환자들이 헴리브라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AGE20'S

파운데이션 점유율 1위

애경산업은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가 소비자패널 전문 마케팅 리서치 기업 ‘월드패널 바이 뉴머레이터’에서 발표한 국내 파운데이션 구매량 조사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월드패널 바이 뉴머레이터 세계 최대 규모 조사기관으로 이번 결과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65세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집계됐고 누적 대상자는 1500만 명에 달한다.

‘에이지투웨니스(AGE20'S)’는 2014년부터 11년 연속으로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에센스 팩트의 경우 2013년 9월 출시 후 2025년 6월까지 단일 품목 기준 누적 판매량 2억 3000만 개를 돌파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국내 파운데이션 부문에서 11년 연속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소비자들 덕분”이라며 “독자 기술과 높은 제품력을 바탕으로 소비 기대에 부응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LG생활건강 ‘더후’ 비첩 자생 NAD 파워 앰플

LG생활건강은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더후’에서 ‘비첩 자생 NAD 파워 앰플(사 진)’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더후 대표 제품군인 ‘비첩’의 첫 앰플이다. LG생활건강이 독자 배합한 저속 노화 핵심 성분 ‘NAD 파워24’를 50% 함유하는 고기능성 제품이다. 1회 사용으로 모공 탄력, 피부 결, 윤기, 보습까지 관리할 수 있다.

LG생활건강 더후 브랜드 관계자는 “비첩 라인 대표 제품인 자생 에센스와 앰플을 함께 사용했을 때 피부 속 장벽이 33% 개선된다는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확보했다”며 “더후의 피부 장수 노하우를 집대성한 NAD 파워 앰플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탈모 치료제 ‘유한미녹펜젤’

유한양행이 탈모 치료용 외용제 ‘유한미녹펜젤’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한미녹펜젤’은 미녹시딜 5%를 함유하며 마사지용 구를 탑재한 펜 형태 일반 의약품이다.

겉 제형의 약액을 손에 묻지 않고 원하는 부위에 정밀하게 도포할 수 있다. 탈모 부위에서 가볍고 부드럽게 문지르면 된다. 흘려내림이나 번짐 없이 정수리, M자, 헤어라인 등 국소 부위에도 활용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